

[조선]

LNG Update: 향후 5년은 거뜰하다.

김대성 조선 02-709-2665 / rlarla6019@ds-sec.co.kr

2026.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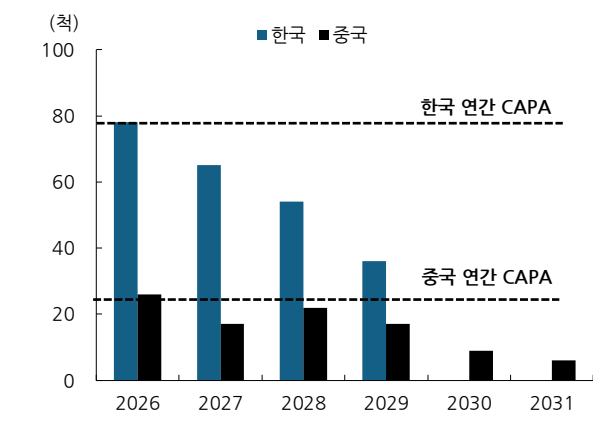
LNG 프로젝트에 폐선 교체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최소 2032년까지 연 평균 90~110척의 수요 전망

최근 업데이트된 글로벌 LNG 프로젝트 기준 건설 중인(U/C) 터미널에 2026~2027년 중 FID(최종투자결정)가 기대되는 물량을 합산할 경우 2032년까지 연평균 90척 이상의 LNG선 신조 수요를 전망한다. 여기에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스팀 터빈 LNG선 약 120척의 폐선 후 교체 발주 수요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폐선된 LNG선의 100%가 스팀 터빈 기반의 LNG선이었던 만큼 이들 역시 순차적으로 폐선돼 연간 10~20척 수준의 교체 발주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즉 글로벌 LNG 프로젝트에 폐선 교체 수요까지 더해진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2032년까지 연평균 90~110척의 발주 수요가 기대돼 LNG선 호황 사이클은 최소 5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카타르발 대규모 발주와 FEED 단계의 글로벌 LNG 프로젝트들의 장기 공급계약(SPA) 물량이 확대될 경우 향후 LNG 호황 사이클이 5년 이상 장기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원화 기준 선가는 꾸준히 상승 중. 하반기 본격적인 미국발 대규모 LNG선 발주로 선가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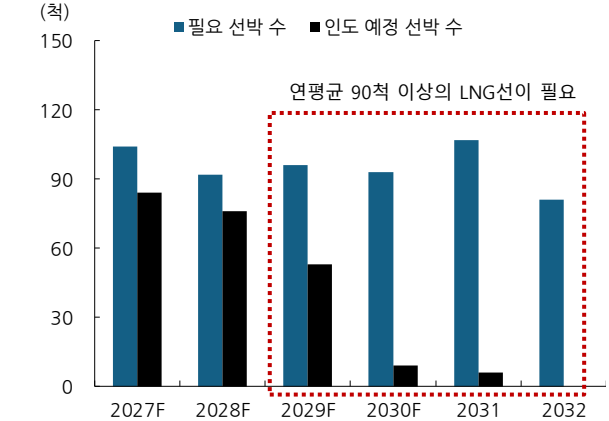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은 총 36척을 수주하며 이미 2025년 연간 LNG선 수주 실적을 넘어섰다. 선조 선가는 2.50~2.54억 달러 수준으로 상승 폭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원화 기준 선가는 2022년부터 꾸준히 우상향 중이므로 향후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미국 LNG 프로젝트 기반의 대규모 발주 랠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경쟁국인 중국의 2029년 인도 슬롯 역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의 공급자 우위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선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LNG선이 국내 대형 조선사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선종이고 최소 향후 5년간은 LNG선 호황기가 지속돼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이익 성장이 담보된 만큼 국내 조선 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림1 한국 및 중국 연도별 수주잔고 현황(인도 기준)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연도별 LNG선 필요 선박 수 및 글로벌 수주 잔고 현황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주1: 필요 선박 수는 현재 건설중인 프로젝트 + 26~27년 FID 기대 물량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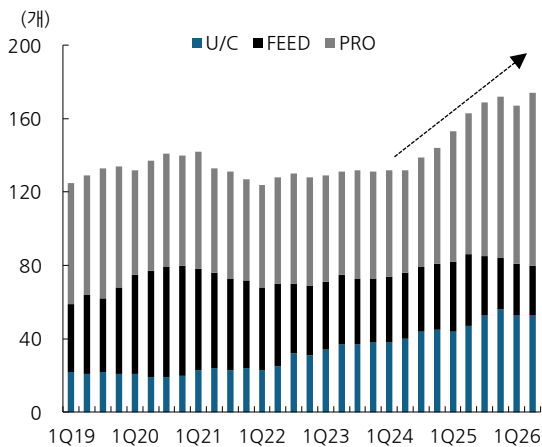
표1 FEED 단계 LNG 프로젝트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현황

국가	프로젝트명	수출용량 (MPTA)	계약용량(HOA 포함) (MPTA)	용량 대비 계약 성사율 (%)	예상 가동 시기	필요 선박 수
Canada	Tilbury Phase 2 LNG Expansion	2.5	2.5	100	2028	1
Canada	Ksi Lisims (FLNG 1)	6	5	83	2029	6
Mexico	Amigo LNG Train 2	3.6	3.6	100	2029	5
Nigeria	Yoho (FLNG)	2.1	2.1	100	2029	2
Papua N. Guinea	Papua LNG	4	4	100	2030	3
Russia	Sakhalin II LNG Expansion	5.4	-	-	2030	2
United States	Coastal Bend LNG	22.5	-	-	2030	41
United States	Texas LNG	4	4	100	2030	9
Argentina	Argentina LNG Phase 1 (FLNG 1)	6	6	100	2031	12
Argentina	Argentina LNG Phase 1 (FLNG 2)	6	6	100	2031	12
Canada	LNG Canada Phase 2	14	14	100	2031	15
Mozambique	Rovuma LNG	18	18	100	2031	22
United States	Gulf LNG Phase 1	5	-	-	2031	11
United States	Port Fourchon LNG Phase 1	10	-	-	2031	20
United States	Magnolia LNG Trains 1-2	4.4	-	-	2031	9
United States	Magnolia LNG Trains 3-4	4.4	-	-	2031	9
Indonesia	Abadi LNG	10.5	8	76	2032	6
Mexico	Saguaro Energia LNG	15	13.8	92	2032	19
Nigeria	Padah LNG	3.4	-	-	2032	5
United States	Freeport LNG Train 4	5.5	1	18	2032	10
United States	Gulf LNG Phase 2	5	-	-	2032	10
United States	Monkey Island LNG Phase 1	15.6	9.9	63	2032	29
United States	Sabine Pass LNG Train 7	6.5	4.8	74	2032	12
United States	Cameron LNG Train 4	6.8	6.8	99	2032	15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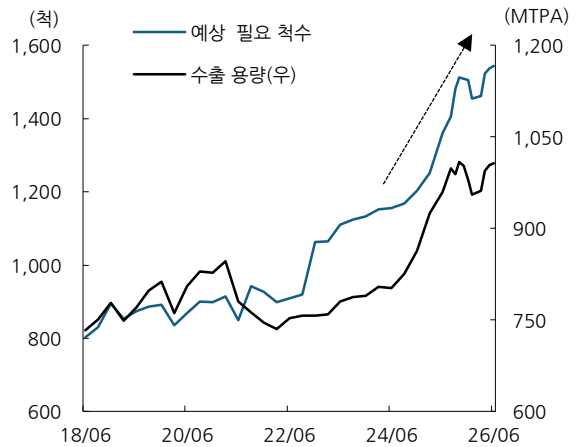
주1: 하늘색 음영 처리는 2026~2027년 FID가 기대되는 프로젝트

그림3 글로벌 LNG 프로젝트 수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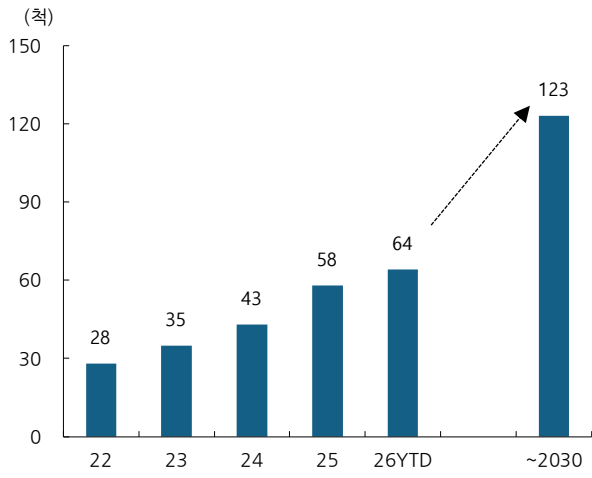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글로벌 LNG 프로젝트 기반 선박 및 수출 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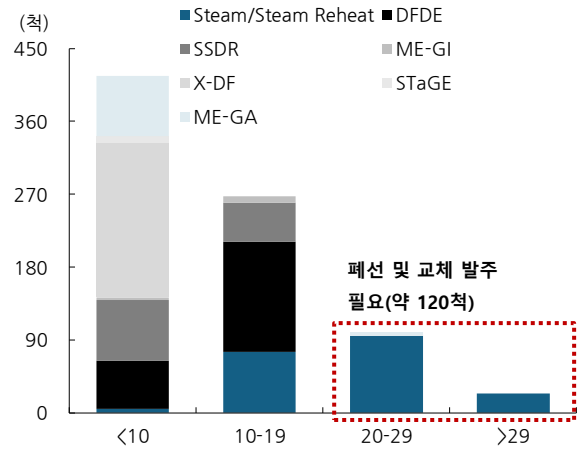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연도별 LNGC 누적 폐선량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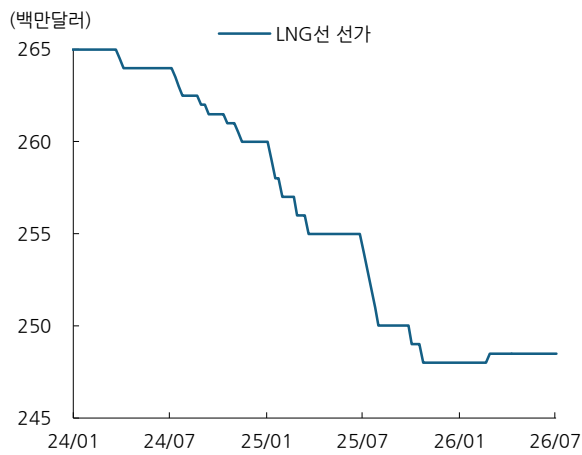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선령 및 연료별 글로벌 LNGC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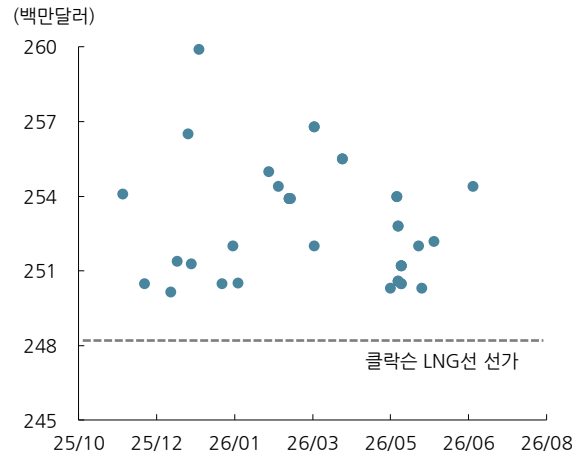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Clarksons 기준 LNGC 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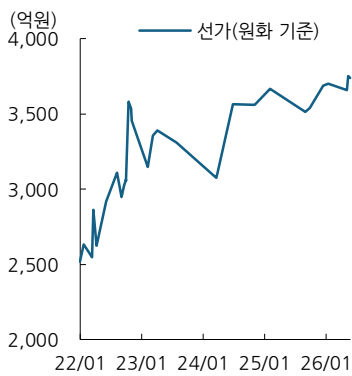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선가는 252~255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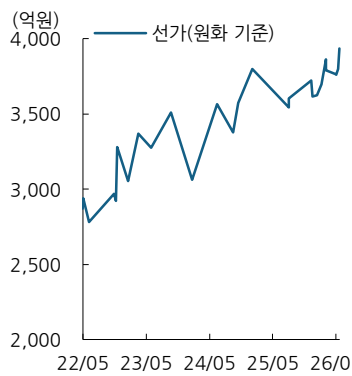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한화오션 LNGC 수주 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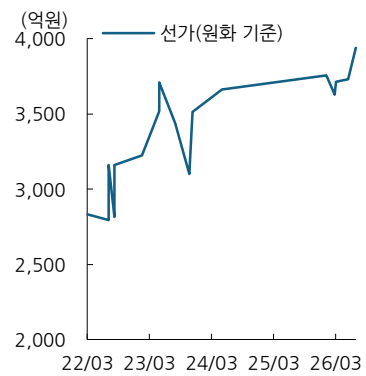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한화오션 수주잔고 기준

그림10 삼성중공업 LNGC 수주 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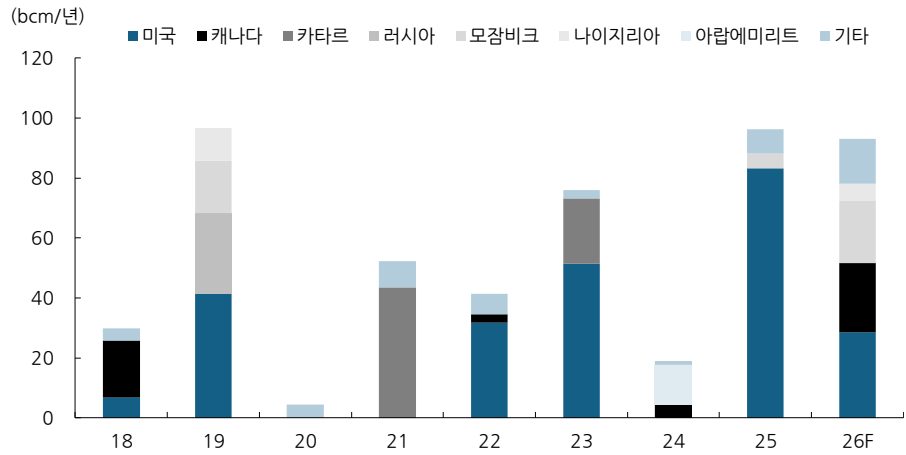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삼성중공업 수주잔고 기준

그림11 현대중공업 LNGC 수주 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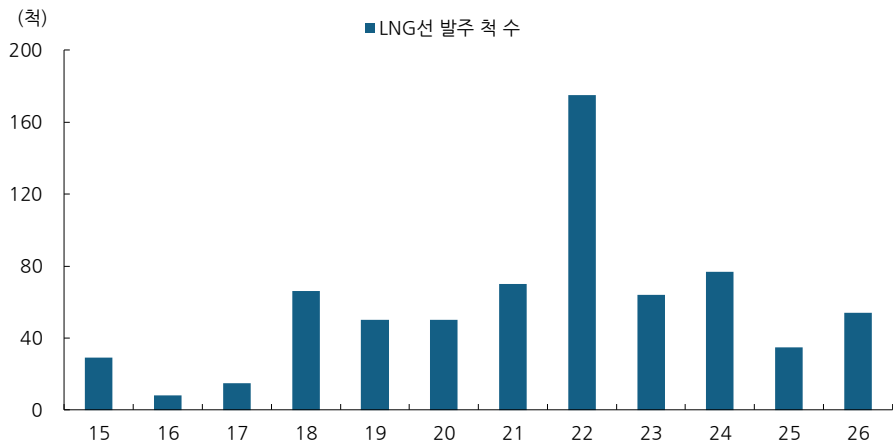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현대중공업 수주잔고 기준

그림12 연간 FID 물량 추이 및 전망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13 글로벌 LNG선 연간 발주량 추이



자료: Clarksons,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